



아그파코리아(주) 잉크 최적화 솔루션 Inksave & OptiInk GCR 기술 통해 컬러 저하 없이 잉크 비용 25% 절감

경기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인쇄사가 느끼는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감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인쇄인들은 생산성을 확대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잉크 비용을 25%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잉크 최적화 솔루션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유력한 대안의 하나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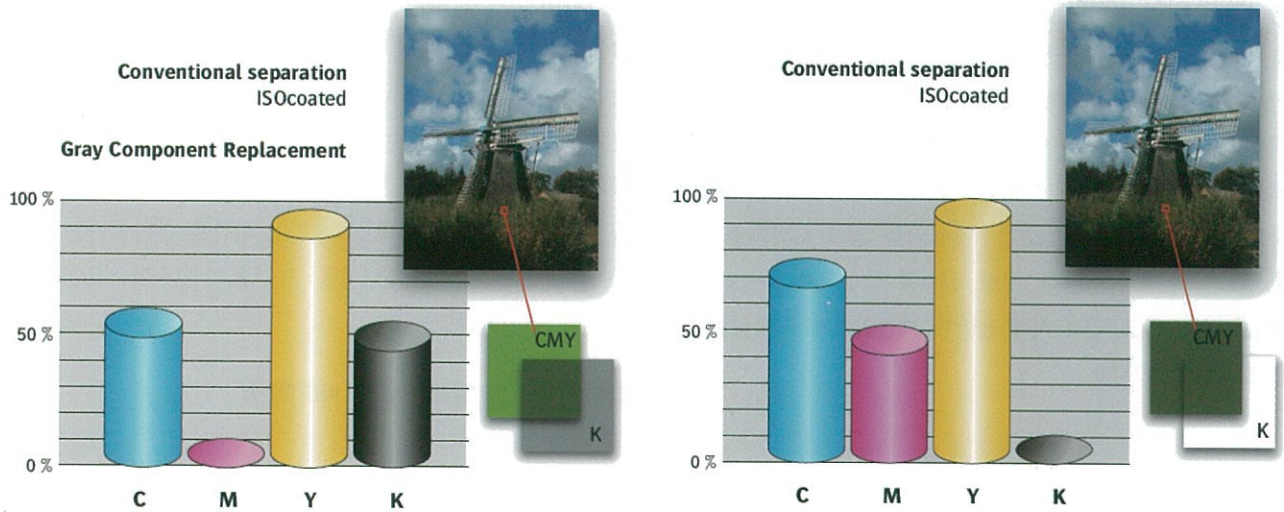
지나친 비용 절감 품질 저하 부작용 날기도

인쇄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은 인쇄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불황일수록 인쇄 공정에서는 재료비용 절감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인쇄 업체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재료와 비용의 절감을 통해 인쇄물의 이익이 증대되거나 업체의 영입이 확대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오히려 과도한 절감이 인쇄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돼 인쇄 영업과 매출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도 한다.

인쇄업체가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제품을 얼마나 훌륭하게 제작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을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에 발 맞춰 아그파에서는 인쇄 품질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잉크 최적화 솔루션인 Inksave와 OptiInk를 공급하고 있다. 불황기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은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올리는 것이다. 아그파의 잉크 최적화 솔루션은 이러한 불황기에 적합하고, 이 시대 트렌드에 최적화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잉크 최적화 적용 전후 잉크량 변화



상대적 고가인 CMY 사용량 K로 대체

아그파의 잉크 최적화 솔루션은 GCR(Gray Component Replacement) 기술을 채용해 원본 이미지의 색상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Cyan, Magenta, Yellow 컬러의 뉴트럴 성분 색상 사용량을 줄여 Black 색상으로 대체하는 기술이다.

잉크 최적화 솔루션으로는 UCR, GCR이 있다. UCR(Under Color Removal)은 이미지 새도우 부분의 뉴트럴 컬러를 먹으로 대체하는 기술인데, 적용 후 효과나 잉크 절감 면에서는 GCR이 훨씬 더 선호하는 기술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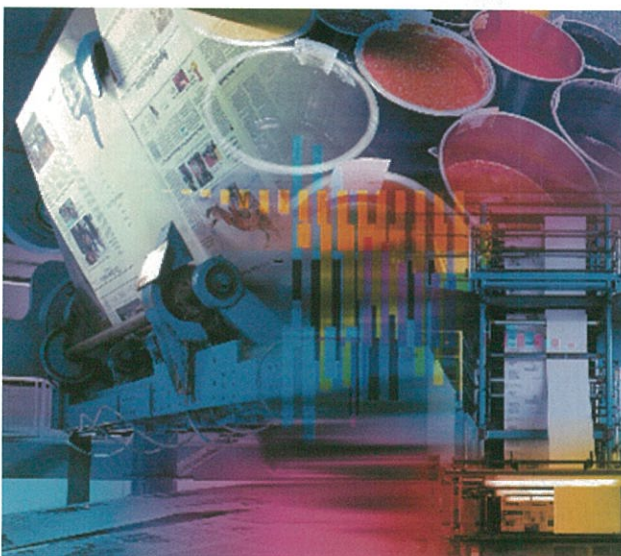
아그파의 잉크 최적화 솔루션은 Inksave와 OptiInk 2가지가 있으며, Inksave는 상업 인쇄용 잉크 최적화 솔루션이며, OptiInk는 상업 인쇄 및 신문사 모두 사용 가능한 PDF 기반의 잉크 절감 소프트웨어다.

잉크 최적화를 통해 인쇄 품질을 향상하고 원본 색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잉크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약 15% 이상의 잉크 사용량 감소와 약 25% 이상의 잉크 구매 비용 절감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CMY 잉크의 가격보다 Black 잉크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의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컬러 성분을 적게 사용하고 이를 먹 성분으로 대체해 그레이 밸런스를 향상할 수 있어 디지털 원본과 가까운 색을 재현하게 된다. 인쇄 품질이나 공정의 관점에서 볼 때 뒷문음이나 뒤비침이 가장 큰 문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뒷문음 뒤비침 억제 · 건조시간 단축

Inksave와 OptiInk는 1999년 전 세계 최초로 아그파가 개발한 잉크 최적화 소프트웨어다. 잉크 최적화는 거의 모든 인쇄물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전용 소프트웨어에서 간단한 세팅으로 PDF 파일 또는 출력 단계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전 세계 여러 업체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검증된 인쇄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잉크를 과다하게 사용해 발생하는 뒷문음과 뒤비침을 억제하고, 건조 시간을 줄이고자 할 때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그파의 잉크 최적화 솔루션은 CMY 뉴트럴 컬러를 Black 잉크로 대체할 뿐만 아니라, 잉크 총량을 인쇄용지에 맞게 340, 320, 240 등으로 제한하고, CMYK 1차색과 더불어 이를 통해 생성되는 RGB 2차색, 3차색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보다 많은 잉크를 원본 손실 없이 절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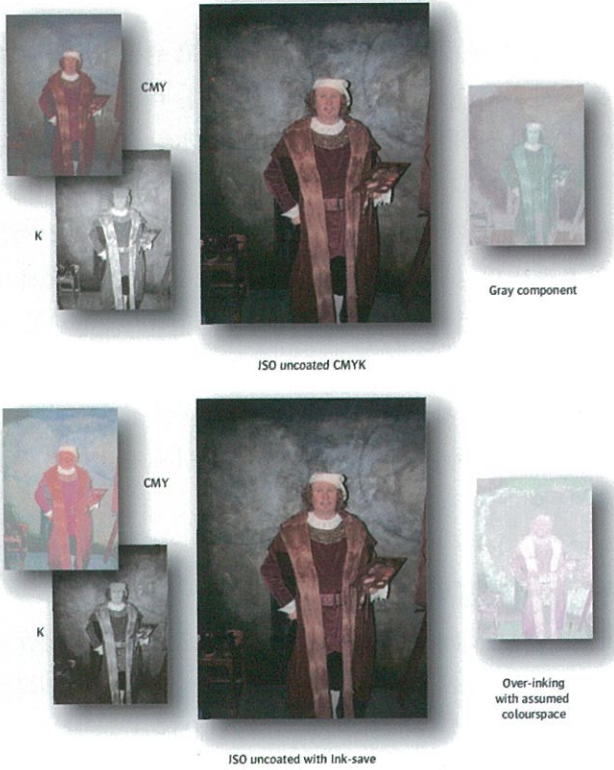


잉크 최적화를 통해 인쇄 품질을 향상하고 원본 색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잉크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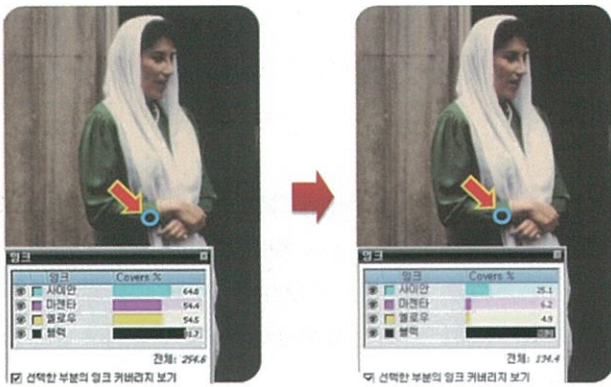
상업 신문 잉크젯 인쇄에 모두 적용

아그파의 잉크 최적화 솔루션은 활용 범위가 매우 넓다. 책자, 브로슈어, 캘린더, 포스터 등 거의 모든 상업 인쇄와 신문 인쇄 시장 그리고 잉크젯 인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많은 고객들이 사용 전 색상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만, 실제 인쇄에서는 오히려 CMY 잉크 밸런스로 인한 변수를 억제해 인쇄물의 색상차를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잉크 최적화를 적용한 인쇄물의 결과에 대해 100% 신뢰를 얻게 되며, Inksave와 OptiInk의 도입도 인쇄 시장 전반에 광범위하게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 잉크 최적화 적용 전후 컬러 분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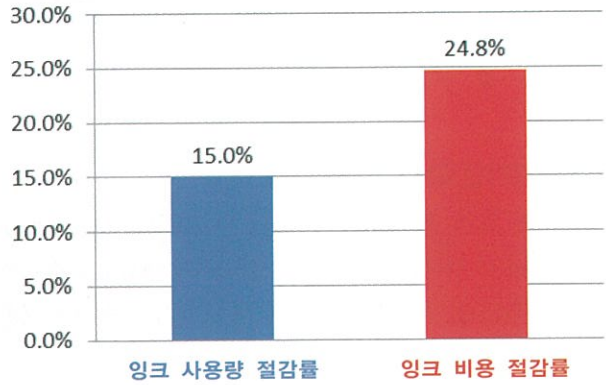
〈그림 3〉 잉크 최적화 적용 전후 잉크 커버리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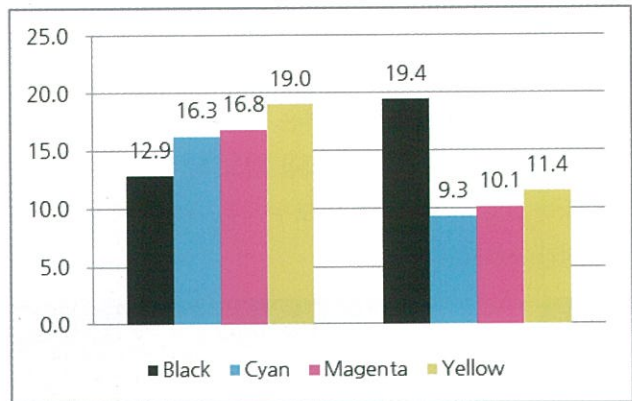
솔루션 구입 후 1년이면 투자수익률 확보

아그파의 잉크 최적화 솔루션은 수년 전부터 국내 인쇄 업체의 현장 실무에 적용되고 있다. 잉크 절감량은 평균적으로 잉크 키 기준 15% 정도이며, 잉크 비용을 고려하면 약 25% 정도가 절감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인쇄물의 토털 잉크 커버리지(TIC)를 줄여 인쇄 뒷문음 현상을 최소화하고 인쇄 핀 맞춤 시간이 절약되며, 무엇보다 건조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잉크 최적화 솔루션을 구입 후 약 1년 이내 ROI를 확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림 4〉 잉크 절감량과 잉크 구매 비용 절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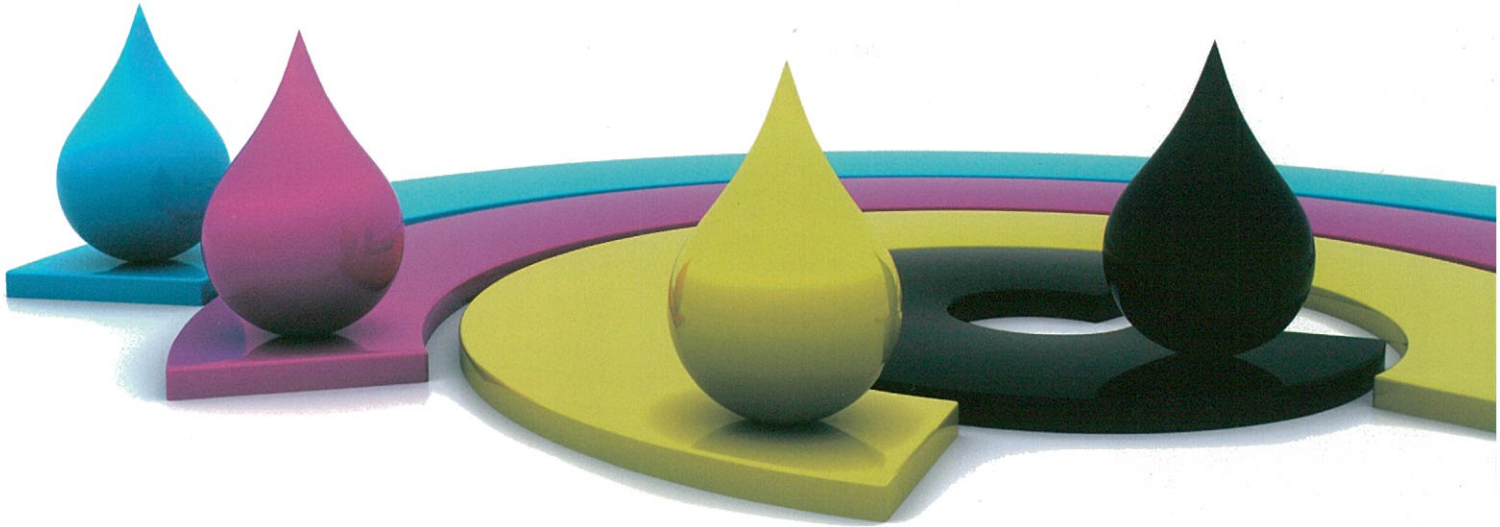
〈그림 5〉 잉크 최적화 적용 후 평균 잉크 키 값 변화



2014년 5월 국내 K사 잉크 사용 통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무한경쟁 돌파구 역할

인쇄 산업에서 잉크 최적화 솔루션에 대한 고객의 요구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머지 않아 상시 적용해야 할 기본 인쇄 기술로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의 인쇄 시장은 무한 경쟁 속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아그파는 고객이 바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솔루션인 잉크 최적화 솔루션을 통해 고객의 가치와 이익을 높이기 위해 늘 함께 한다는 방침이다.



미니인터뷰 아그파코리아(주) 조현일 프리세일즈 차장

“전 세계 500여 업체 보급 ‘품질·비용 일거양득’”



잉크 최적화 솔루션의 시장 전망은?

전 세계 경기 전망이 밝지 않고, 인쇄업계가 지속적인 저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잉크 절감이다. 잉크 절감 기술은 UCR과 GCR로 나눌 수 있는데 이 2가지 기술은 현재까지도 잉크 절감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다. 이 중에서도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술이 GCR을 적용한 아그파의 Inksave와 OptiInk다. 잉크 최적화 솔루션인 Inksave와 OptiInk는 해외 및 국내 시장에서 수많은 테스트와 검증 과정을 거쳐 인쇄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동

시에 가져오는 최적의 방법임을 고객들에게 입증해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UCR과 GCR 기술을 확대 채용하는 추세이며, 아그파는 전 세계 약 500여 업체에 잉크 최적화 솔루션을 보급해 오고 있다. 아그파 잉크 최적화 솔루션은 고객이 별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바로 실제 인쇄 공정에 적용이 가능하다. Inksave와 OptiInk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객들이 더 먼저 찾는 기술로 보다 빠르게 보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아그파가 추구하는 마케팅 전략은?

아그파의 마케팅 전략은 아그파의 슬로건인 Stay Ahead with AGFA에 모두 담겨 있다. 그래픽 분야의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전문적인 고객 컨설팅을 통해 고객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으로 국내 시장에 PDF 워크플로를 최초로 소화해 보급하고, 7~8년 전부터는 컬러매니지먼트 컨설팅을 시작했으며, 이후에도 잉크 최적화 솔루션인 Inksave로 이어오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단순히 제품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객에게 가치를 부

여하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하게 노력하며, 고객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Stay Ahead with AGFA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아그파의 마케팅 전략이다.

아그파에게 있어 고객은 어떤 존재인가?

현재 인쇄 시장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2014년 세계 경제성장을 전망은 연초 3.2%에서 2.8%로 하향 조정됐다. 또한 국내 경제성장률도 4%에서 현재 3.4%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내년에도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의 출구전략, 유럽과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환율 변동 등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남과 같아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그렇게 때문에 경쟁 우위에 서는 방법을 선택하고 고민해야 한다. 아그파는 고객들의 고민을 언제나 같이 할 것이다. 아그파와 고객의 가치가 늘 같은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할 생각이며, 아그파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나 연락해주길 바란다.